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88조 9,4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 2,318억원


취업유발효과
536,453명

공항건설, 공항운영, 항공운송, 여객여행, 접근(연결) 교통망 구축, 배후도시개발 등



부산광역시 2021 MARCH VOL. 30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30
2021 MARCH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조정 이상우 원로 인터뷰

스포츠 플러스

롤러스포츠

스포츠 전국투어

새 마음 새 뜻으로 걸어보는 부산 갈매길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More Deeply

- 04 **특별기획**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장인화 회장 당선
- 06 **영광의 주역**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조정 국가대표 이상우 원로
- 10 **노력의 담방울**
부산광역시불링협회 회장 송연익
- 14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 우승 한바다중학교
- 18 **함께하는 생활체육**
2020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그라운드골프 1위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



More Broadly

- 22 **스페셜 리포트**
부산체육의 미래지향적 스포츠 마케팅 방향
- 26 **스포츠 in 과학**
스포츠 영상분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30 **구·군체육회를 가다**
서구체육회
- 34 **잊지 못할 그 순간**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농구 결승전
- 38 **이슈 앤 포커스**
체육인 지원 사업

More Pleasantly

- 40 **스포츠 플러스**
스피드의 진수! 그라운드 위의 쇼트트랙, 롤러스포츠
- 44 **스포츠 전국투어**
새 마음 새 뜻으로 걸어보는 부산 갈맷길
- 48 **키워드가 있는 건강상식**
현대인의 고질병, 스마트폰 중독과 퇴행성 척추측만증
- 52 **문화공감**
홀로서기 심리학

More Closely

- 54 **BSC 뉴스**
- 56 **구·군체육회**
- 58 **회원종목단체**
- 59 **부산공공스포츠클럽**
- 60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61 **국민체육센터**
- 부산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63 **공공체육시설**
-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발행일 2021년 3월 24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30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디자인 디자인대훈(T. 051-898-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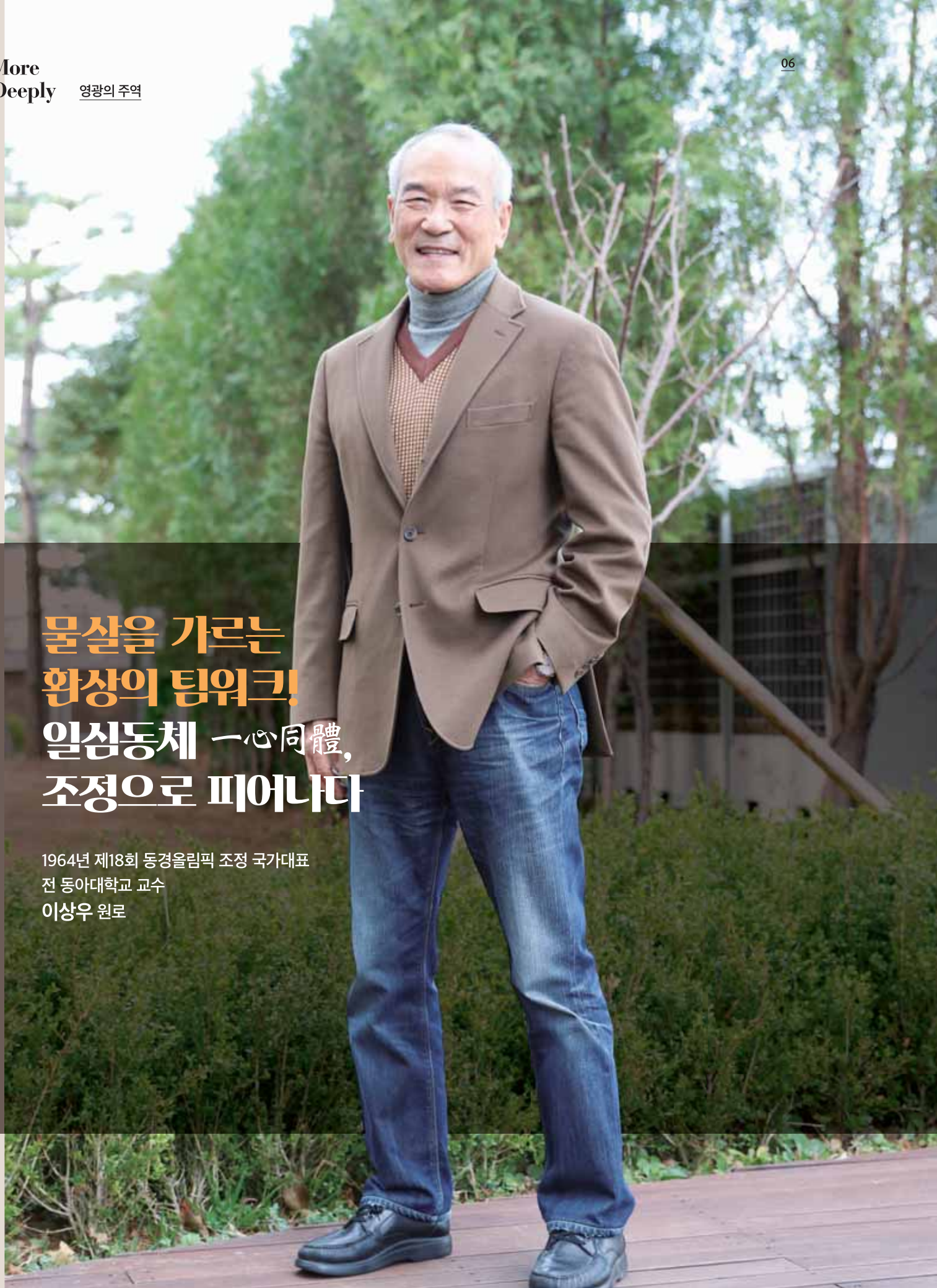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祝 당선 장인화 회장님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부산체육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장인화 회장님의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 당선을 깊이 축하합니다.
부산의 체육과 경제를 화합과 혁신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물살을 가르는
환상의 팀워크!
일심동체 一心同體,
조정으로 피어나다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조정 국가대표
전 동아대학교 교수
이상우 원로



一心同體
Rowing

운명처럼 다가온
조정에 빠지다



1962년 제18회 동경올림픽 첫 훈련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조정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교직에서도 여러 제자들과 함께 조정경기를 해왔다. 대한조정협회와 부산조정협회 부회장이자 아시아조정연맹(ARF, Asian Rowing Federation) 부회장 그리고 대한조정협회 국제심판 역임까지, 한평생 조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유산소운동과 근력 운동을 잊지 않고 실내용 조정기구인 로잉머신(Rowing machine)을 타는 이유는 조정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모두가 조정경기의 매력을 알기 바란다는 이상우 원로의 이야기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처음 만난 조정은 소년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영국 템스강 위에서 조정경기를 즐기는 옥스퍼드, 캠브리지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 협동심까지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덕에 조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젠틀맨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키 176cm의 건장한 대학생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가슴 한편에는 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운명처럼 조정이 이상우 원로의 곁으로 다가왔다고.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1학년생이던 1961년, 정부에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 낙하산 훈련, 사격 등과 같은 종목을 권하던 시기입니다. 체력은 물론 집중력과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는 운동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 답은 정해져 있었죠. 무조건 조정이다.”

곧바로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모아 에이트(Eight) 경기 조정팀을 꾸렸다. 노를 젓는 8명의 크루(Crew)와 키잡이인 콕스(Coxswain)가 한 팀으로서 2,000m를 이동하는 에이트 경기의 특성상 마라톤과 맞먹을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건 팀원끼리 따로 노는 손발을 맞춰가는 일이었다고.

“크루들 모두 체격이 좋고 체력에도 자신 있었는데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보트(Boat)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온몸으로 노를 저으면 양 손목이 통통 부을 정도였으니까요. 3~4개월 정도가 지나니 동작이 맞아 들어갔어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며 시합도 했는데, 저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조정팀이 대회를 휩쓸었죠.”

태극마크를 품고 물살을 가르다

이듬해인 1962년 10월, 대한조정협회가 창설되며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신장 180cm, 체중 75kg 이상을 차출해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조정선수 선발에 나선 것. 모집기준인 180cm보다는 조금 작은 키, 하지만 뛰어난 체력과 조정경기에서의 탁월한 실력 덕에 이상우 원로 역시 선발된 26인 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 후로 2년 정도 계속된 치열한 연습과 훈련.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을 5개월가량 남겨두고 위기가 찾아왔다.

“운동을 쓰는 조정에서 특히 중요한 게 복근인데 급성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수술을 하고 최소한 20여 일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콕스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 보며 호흡과 속도를 맞추는 중요한 8번 자리, 스트로크(Stroke)를 맡고 있어서 다른 선수와 교체가 힘들었죠.”

수술한 지 7일 만의 퇴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밤낮없이 운동에만 매진해서 15일 만에 훈련에 복귀한 이상우 원로를 보고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조정경기 국가대표로서 동경올림픽에 참여했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메달 석권에 실패했기 때문. 하지만 이후로도 이어진 조정과의 행복한 동행, 이제는 모두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됐다.

“당시 조정팀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조정을 위해 헌신하고 기틀을 마련하신 홍형표 대한조정협회 초대 회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변변한 반찬도 없이 밥을 먹으며 운동하던 저희에게 사비를 털어 고기도 여러 번 사주시고, 한강에서 조정 연습을 할 때 직접 오셔서 지도도 해주셨죠.”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외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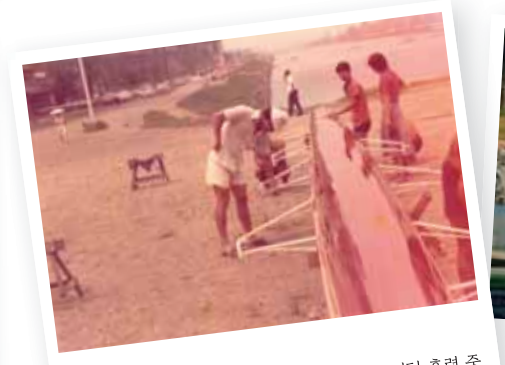
1963년 한강에서의 조정 훈련



1964년 7월 일본 동경 도다현 전지훈련



1964년 7월 일본 동경 도다현 전지훈련



1974-1976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시절 조정팀 훈련 중



1988년 대한조정협회 국제심판 당시

부산 조정계의 든든한 기둥이 되다

동경올림픽 조정 국가대표로 참가한 이후에도 이상우 원로는 꾸준히 조정의 길을 걸어왔다. 해병대 조정팀으로서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1973년에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조정팀도 이끌었다고.

“조정을 전혀 모르는 선수들을 길러내 2년 만에 전일본조정선수권 대회에 참가시켰어요. 1976년에는 부산대학교 여자 조정팀을 꾸려 당시 최강자인 경기대학교 여자 조정팀을 꺾고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했죠.”

이상우 원로는 학교 조정부 창단, 대한조정협회와 부산조정협회 부회장이자 아시아조정연맹 부회장으로서 한국 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상도 수상했다. 특히 그가 부산조정협회 실무부회장을 맡았을 때 시작한 일본 후쿠오카 조정협회와의 교류전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부산 조정계에서는 이상우 원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 각 시도별 조정협회가 많은데 부산조정협회처럼 외국과 교류하는 곳은 드물죠. 이런 활동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정경기가 생활체육화 되고 여러 클럽 활동으로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이 널리 알려져 취미로 즐기는 시민들이 더 늘어나고 또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조정의 내일입니다.”

“
우리 조정이 널리 알려져
취미로 즐기는 시민들이
더 늘어나고 또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 조정의 내일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PROFILE

주요 이력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역임
-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학장·교수 역임
-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연구소장 역임

주요 경력

-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 조정 국가대표 선수
- 대한조정협회 이사·부회장 역임
- 부산조정협회 이사·실무부회장 역임
-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정 사무총장
- 아시아조정연맹(ARF) 부회장 역임
- 대한조정협회 국제심판 역임
-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역임

공적 사항

- 2008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체육 분야 수상
- 황조근정훈장 제151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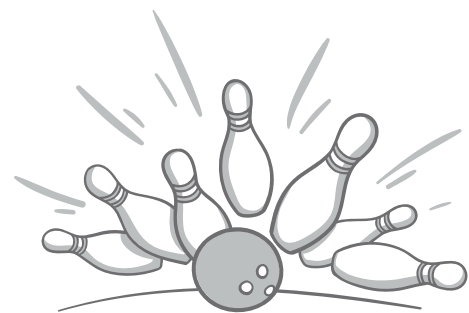


Noblesse Oblige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 봉사의 미덕 실천가

부산광역시보링협회 회장 송연익

인터뷰 내내 겸손히 자신을 낮춰 친절과 배려를 보인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하고 여유를 안겨주는 저력을 지녔다. 그는 바로 지난 1월 20일(수) 부산광역시보링협회장에 취임한 (주)에스엠산업 송연익 대표. 2012년 부산광역시보링협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협회와 연을 맺은 그의 보링 구력은 30년, 에버리지 170에 베스트 230을 자랑하는 보링인이다. 수년간 부산광역시보링협회에 몸담으며 늘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송연익 회장,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간 품어둔 계획을 제대로 펼쳐낼 요량이다. 25년간 탄탄하게 회사를 꾸리며 외유내강(外柔內剛)의 리더십을 발휘해온 송 회장, 그의 창의적인 추진력과 무한대의 유연성을 부산광역시보링협회에서 어떻게 발휘하고 획기적인 변화로 이끌지 기대가 된다.



2025년 이내 공공 보링 전용경기장 건립에 최선을 다할 터

“부산광역시보링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공공 보링 전용경기장 설립입니다. 제 임기 내에 꼭 이뤄야 할 중점 사업이에요.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 국제 규모의 공공 보링 전용경기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는 50개 정도의 사설 보링경기장만 있거든요. 경북 구미만 해도 보링 전용경기장이 2곳이나 있는데 말이죠. 2025년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보링 전용경기장이 없으면 결국 다른 도시로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할 상황인 거죠. 현재 사설 보링경기장도 노후화가 심각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47년째 부산 보링계 최대의 숙원사업인 셈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대한보링협회의 도움도 요청할 겁니다.”

부산광역시보링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첫째도 보링 전용경기장, 둘째도 보링 전용경기장 설립을 외쳤던 그다. 그가 반드시 이뤄야 할 또는 이루고픈 0순위 목표이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조금하듯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타기관의 협조를 구하면서 사업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유연하게 찾아가는 중이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꿈나무 육성 인프라 확충

공공 보링 전용경기장이 첫 번째 과제라면 두 번째 중점 과제는 ‘꿈나무 육성과 스포츠클럽 활성화’이다. 학생선수가 많았던 1980년대만 해도 부산은 보링 종목이 강세였다.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많을 정도로 황금기를 누렸는데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 이제는 중학교 1팀, 고교 1팀, 대학 1팀에 그친다고 했다. 스타 선수를 키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뿌리부터 튼튼하게 꿈나무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보링협회 회장 송연익

“
 어린 때부터
 볼링을 접할
 기회를 늘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전문 체육 활성화로
 연결하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 볼링을 접할 기회를 늘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전문 체육 활성화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게 그의 장기 계획이다. 현재 부산 볼링 동호인은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 이 중 협회 회원은 4,000여 명, 선수는 43명이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는 34년째 부산MBC 스포츠 중계석 볼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생활체육이 크게 위축됐던 게 사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부산광역시볼링협회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114개 클럽이 참여한 가운데 2020 부산시장배 슈퍼컵 볼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20년은 체육대회란 대회는 다 취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무자들이 철저히 준비과정을 거쳐 경기장을 물색하고 참가 인원에게 수시로 대회 일정을 알리고 특히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단 한 명의 감염자 발생 없이 대회를 치러낸 것은 그야말로 부산광역시볼링협회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군 결실이었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는 아시아 최초로 야외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국제 볼링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컵 국제오픈볼링대회가 바로 그것. 이 대회는 부산 볼링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회로 불린다. 송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2회 부산컵 국제오픈볼링대회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1호 나눔 리더,
 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

지난 30년간 취미로 볼링을 즐길 만큼 볼링의 매력에 심취한 송연익 회장, 뭐니 뭐니 해도 볼링의 매력은 스트라이크 시 볼링공에 핀이 제대로 맞았을 때 그 손맛, 타격감이 짜릿함을 준다고 했다. 볼링 외에 송 회장이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은 지인들과 가끔씩 치는 골프, 부산 갈맷길 코스를 애용하며 걷기, 또 집 근처 가까운 산에 오르는 것이다. “일상이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시작한 게 볼링이었어요. 볼링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지인의 권유로 2012년 11월부터 이사직을 맡았고 2013년부터는 부회장이 되었어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2016년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부산MBC 볼링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기도 했구요.”

일상에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선지 그 역시 ‘나눔 전도사’가 됐다. 2017년부터 연간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에게 ‘나눔 리더’ 인증서를 전달해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그곳에서 임명한 ‘부산 1호 나눔 리더’가 바로 송연익 회장이다. 그의 권유로 ‘나눔 리더’에 가입한 사람만 해도 20여 명,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대표적인 리더들이다. 앤더스커피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온 기업가인 송 회장은 2020년 6월 부산형 착한 기업인 (주)비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비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어려운 이웃,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계약을 체결한 그는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작은 밑알이 되겠다는 약속, 자신부터 나눔에 앞장서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오랜 바람을 씀 없는 실천으로 이어오는 중이다.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 사고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게 유능한 리더의 자질 아닐까요?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임원들과 함께 제 임기 내에 계획한 사업을 현실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시간은 물론 즐기며 웃는 시너지 가득한 여정일 테고요.”

주요 이력 사항

현 (주)에스엠홀딩스 대표이사
 (주)에스엠산업 대표이사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 감사장
 2018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2018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부산사회복지모금회 시민참여위원 (부산 나눔 리더 1호)
 2019년 부산사회복지모금회 표창장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우리의 열의, 모두의 환희! 필드에 선 너희가 모두 주인공이야!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 우승
한바다중학교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패스만으로 상대편 진영까지 이동해야 하니까 팀 상호 간의 협동이 중요한 종목이죠.”

지난 2019년 10월 5일, 동의대학교 효민체육관에서 열린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 부산지역 각 교육지원청 예선을 거친 남중부 7개 팀과 여중부 11개 팀 선수 35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한바다중학교는 남녀팀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준 한바다중학교 플라잉디스크팀, 그들이 내뿜는 특별하고 독특한 생기와 활력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플라잉디스크를 향한 강한 열망, 선수와 강사 모두의 열의

“플라잉디스크는 1940년대 미국 대학생들이 파이 접시를 던지면서 놀았던 것에서 유래된 종목으로 진행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세부종목으로 나뉘어요. 얼티미트(Ultimate)는 럭비나 미식축구와 비슷한 스포츠로 7명이 한 팀이에요. 원반을 이용해 엔드 존(End zone)에 터치다운(Touchdown)을 해서 득점하는 경기인데 던지는 선수는 원반을 갖고 뛸 수 없고 팀원이 패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패스만으로 상대편 진영까지 이동해야 하니까 팀 상호 간의 협동이 중요한 종목이죠.”

그 외에 세부종목인 디스크 골프는 골프공 대신 원반을 이용해 골 홀에 넣는 경기로 경기 방식이 골프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4명이 1조가 돼 9홀 또는 18홀을 도는 동안 최소 횟수를 던져 넣은 사람이 이기는 디스크 골프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 장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통 윗놀이와 동일한 방식인데 윗 대신 원반을 던지는 경기인 플라잉디스크 윗놀이도 언급했다.

한바다중학교 플라잉디스크팀을 지도해온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다. “보통 토요일 스포츠클럽은 오전에 90분 수업인데, 그 훈련 시간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대회에도 나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이 고작 90분이라니... 다양한 기술과 전술을 가르치고 익히기에 지나 아이들에게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학교 측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싶다고 전했는데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사실 수업 시간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이들이 먼저 꺼냈어요.”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주역, 플라잉디스크의 매력

“뉴스포츠가 ‘동네 놀이’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규칙이 유연하고 간편해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익힐 수 있고요. 대표적인 뉴스포츠인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는 럭비에 원반 던지기를 접목시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바다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는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는 운동 감각이 좋은 친구는 3일, 그렇지 않은 친구도 일주일이면 포핸드(Forehand)부터 백핸드(Backhand) 던지기까지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축구나 농구는 잘하는 아이들, 즉 ‘주류’가 형성되고 기술이 부족한 이들은 경기에서 소외되기도 하는데 플라잉디스크 종목은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스포츠인 셈이다.

한바다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는 그동안 대회에 함께 나갔던 학생 중 기량이 유달리 좋았던 이들 몇몇을 언급했다. 현재 체육 특성화고인

동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황규태 학생과 덕문여자고등학교 3학년인 최효주 학생이 바로 그들.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는 잘 던지는 게 중요한데 이들이 그랬다. 특히 최효주 학생은 체육대학에 진학해서 플라잉디스크를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바람일 만큼 플라잉디스크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스포츠클럽 지도자는 지난 2020년 1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15세 원반 던지기 고수로 소개된 한바다중학교 3학년 김민겸 학생과 중1 때부터 시작한 플라잉디스크에 푹 빠져 있는 한바다중학교 3학년 문소진 학생을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 우승의 주역으로 꼽았다. 그들에게 플라잉디스크는 어떤 의미일까. 공격 차례가 되었을 때 전술에 맞춰 원하는 곳에 원반을 던지는 핸들러(Handler)가 포지션인 김민겸 학생, 플라잉디스크를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다. 코로나19로 작년 다수의 대회가 취소된 점을 안타까워했다. 할 수만 있다면 국가대표까지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문소진 학생의 포지션은 상대방 수비수를 피해 핸들러가 원반을 잡아 던지면 전달하는 커터(Cutter), 플라잉디스크를 시작한 지는 3년이 채 안 되었다.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플라잉디스크 대회에서 우승을 맛본 터라 이후 대회에 출전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그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라도 꼭 대회에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랐다.



잔디구장 갖춘 대학, 학교와 연계, 플라잉디스크의 저변 확대

“플라잉디스크가 대중화하려면 결국 많은 대회가 열려야 해요. 아이들이 대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이 곧 실력이 되고 이는 곧 플라잉디스크 선수의 저변 확대를 이루는 토대가 될 테니까요.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학이나 학교와 연계해서 넓은 잔디구장을 갖춘 장소를 쉽게 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실제 경기 때처럼 잔디구장을 많이 뛰다니며 시합을 해봐야 실력도 일취월장(日就月將)할 테니까요. 지금보다 플라잉디스크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학생이 플라잉디스크를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특별하고 어려운 기술을 익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필드에서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말이죠. 올해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부산시 플라잉디스크연맹 회장배, 동래구 플라잉디스크 회장배에서 한바다중학교 플라잉디스크팀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우승’일 테죠.”



2019년 수상 내역	
2019년 5월	해운대구 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예선 순위 결정전 남·여 우승
2019년 6월	플라잉디스크 사상구 협회장기 남자 5인제 우승, 7인제 여자 우승
2019년 7월	플라잉디스크 해운대구 협회장기 참가 남·여 중등부 1위
2019년 9월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남·여 우승 (전국체육대회 부산 대표 출전 확정)
2019년 11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부산 대표 얼티미트 참가 플라잉디스크 동래구청 협회장기 참가 남·여 중등부 1위



나이를 뛰어넘은 뜨거운 열정으로, 매일을 그라운드골프와 함께!

2020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그라운드골프 1위

남구 그라운드골프협회



푸른 잔디밭 위로 매일같이 모여 공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골프채와 닮았지만 끝이 더 뭉툭한 클럽을 들고, 게이트볼과 비슷한 홀포스트를 향해 테니스공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공을 날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가득하다.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그라운드골프에 빠진 덕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를 위한 게 아닐까.



꾸준한 연습으로 건강과 재미를 잡다

“클럽을 들고 공을 치면서 홀마다 타수 계산을 하고 최저 타수가 승리한다는 점에서 골프와 비슷해요. 하지만 그라운드골프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배우기도 쉽고,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서 특히 인기예요.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얼핏 보면 골프나 게이트볼을 연상케 하는 그라운드골프는 1980년대 초반 일본 돗토리현에서 생겨난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충청북도 음성군과 경상북도 경주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짧다면 짧은 역사지만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가득하다고.

“매일같이 모여서 그라운드골프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연습시간이지만 원한다면 하루 종일 운동할 수도 있죠. 백운포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과 축구장,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옥상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덕분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 김송기 사무장이 말하는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2007년 12월 45명으로 창립한 이후, 2018년도부터 금부상해 그라운드골프 주요 대회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 역시 꾸준한 연습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끝없는 노력과 도전,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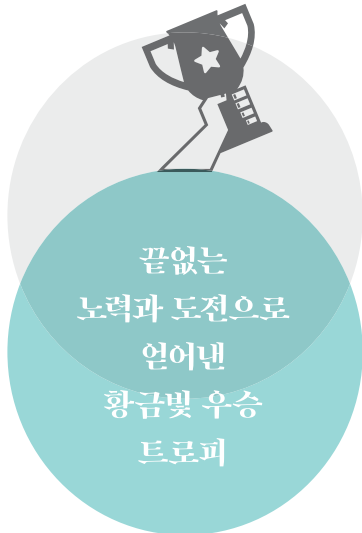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에 그라운드골프 종목이 처음 채택된 2018년,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는 3위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0년간 수상 실적이 없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실력. 탄탄한 연습량으로 기량을 더욱 올려 이듬해에는 곧바로 우승후보로 점쳐지는 강팀이 됐다.

“2019년에는 정말 저희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균 연령도 다른 팀보다 2~3세가량 낮아서 유리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준결승전 탈락.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준결승전 당시의 날씨가 변수였어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첫째 날과 다음 날의 경기 컨디션이 확연히 달랐던 거죠. 경기 당일의 운도 승부의 하나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아온 2020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연습에 매진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아슬아슬한 준결승 진출로 우승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2위와 단 2타 차이로 승리했어요, 남성 회원 6명, 여성 회원 5명이 슈퍼컵대회에 참가했는데 특히 여성 회원들이 큰 점수 차를 만들며 선전해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 때부터 웃고 즐기면서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끝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얻어낸 황금빛 우승 트로피. 1935년생인 최고령 회원부터 1963년생 최연소 회원까지 66명의 회원 모두가 화합하며 즐기며 함께한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는 모두의 실력이 향상된 명실상부 최고의 팀이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다.




함께하는 즐거움,
인생 2막의
행복이 되다

“그라운드골프가 처음이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올바른 스윙 자세부터 거리 조정법,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연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금방 익히실 수 있어요.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와 함께 재미를 느끼고 실력도 성장했으면 합니다.”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는 회원을 80명 이상으로 확대해 두 개의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팀을 나눠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면 모임 활성화는 물론 적극적인 경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는 인생 2막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94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남구민이라면 남녀 불문, 누구든지 언제나 대환영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운동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나이를 뛰어넘어 진정 인생을 즐기는 열정으로 가득한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 이곳에서는 오늘도 공과 채가 마주하는 경쾌한 소리 너머 서로를 응원하는 힘찬 목소리와 행복한 웃음이 흘러넘친다.



**남구그라운드골프협회
주요 수상 내역**

2018년

-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그라운드골프 3위
- 부산북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우승
- 부산강서구청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우승

2019년

- 부산광역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우승
- 부산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준우승

2020년

-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그라운드골프 우승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부산체육의 미래지향적 스포츠 마케팅 방향

글_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오응수



프로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스포츠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참여 및 관람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프로스포츠 경기 이벤트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 연고지 프로스포츠팀의 경기 자체나 승패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공통 화제로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오락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



▲ 미국 대학 농구경기장

Sports Marketing



▲ 미국 대학 풋볼경기장



▲ 미국 야구장

성장 가능성 높은 스포츠 도시, 부산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해양을 끼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문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도시로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리그 종목 중 3개 종목 4개 구단의 연고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대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야구(롯데 자이언츠), 축구(부산 아이파크), 남자 농구(KT 소닉붐) 및 여자 농구(BNK Sum) 등 국내 인기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다양한 스포츠 경기는 부산시민의 여가 선용과 볼거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현재 부산

광역시의 경우 누가 뭐라고 해도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나 팬들의 관심도 및 충성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2018년에 부산 연고 프로축구팀인 부산 아이파크는 '팬 프렌들리 클럽' 미디어 투표 결과 역시 1위로 선정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마케팅 방향에 문제를 깨닫고 새롭게 시도했던 마케팅 전략의 우수한 성과였다. 부산 아이파크는 관중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킵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당 평균 관중의 수는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ROWTH



NECESSARY

부산체육 마케팅의 부진, 링킹 핀(Lingking-Pin)의 부재

이와 같이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친밀도와 프로스포츠팀을 통한 애향심은 프로스포츠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산의 프로야구, 프로축구, 농구의 인기와 열기는 부산 시민의 숫자나 아마추어 스포츠, 전문 스포츠 및 생활체육 참여 동호인 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마케팅 시각으로 봐서 무엇이 문제인가? 본 필자는 링킹 핀(Lingking-Pin)의 부재라 생각한다. 즉 프로스포츠팀의 인기와 아마추어스포츠팀의 인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부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전미대학운동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농구와 풋볼의 인기는 그대로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프로농구와 NFL(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 프로풋볼의 인기로 이어진다. 현재 미국은 프로농구 NBA 올스타전보다 더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NCAA 토너먼트이다. 소위 '3월의 광란'(March Madness)이라고 해서 전 국민 중 상당수가 '어느 대학의 농구팀이 16강에 오르고 결승전에 진출하고 우승을 할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초미의 관심과 열기가 미국 전 지역을 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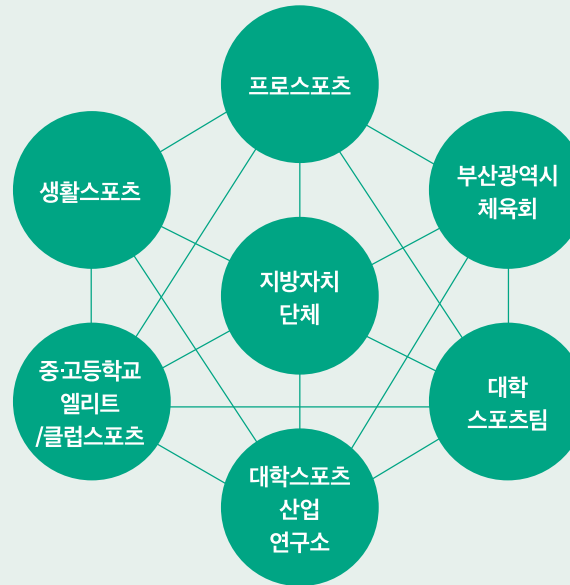


◀ 미국 위스콘신대학 풋볼경기장

대학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한 연계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수

부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스포츠는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일부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학에 어떤 종목의 팀이 존재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학교에 어떤 종목의 팀이 있는지, 언제 시합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시민들과 학생들의 무관심은 대학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학스포츠팀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 본 필자는 부산의 대학 스포츠를 살리는 전략이 바로 부산광역시 체육의 가장 우선적인 미래지향적 스포츠 마케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에 우수한 대학팀이 없이 프로팀 홀로 자신들의 시합에 관중을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프로팀의 인기보다 더 높은 대학 혹은 고등학교 스포츠팀이 존재해야 진정으로 그 지역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부터 대학의 전 종목 팀을 지원하고 키울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최고의 라이벌은 축구와 야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축구와 야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경쟁구도를 이어왔다. 우리나라는 축구와 야구의 경쟁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4대 프로리그에 해당하는 농구와 배구도 나름 축구나 야구에 뒤지지 않는 인기몰이를 하는 경쟁력 있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는 먼저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대학축구팀과 야구팀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부산 소재 대학에 여자농구팀 한 팀을 제외하고는 대학 남자농구팀은 없다. 향후에 현재 부산지역에 남녀 프로 농구팀과 연계해서 대학 남자 농구팀의 창설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다.

[부산체육의 미래지향적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거버넌스]



부산 연고 프로스포츠 팀
마케팅 실행 계획 작성시 해당 종목 생활스포츠, 대학스포츠, 중고등학교 스포츠 팀 참여/연계 마케팅 수립

대학 스포츠 산업 마케팅 연구
프로와 아마추어 엘리트 및 생활체육이 연계된 마케팅 연구 활성화 및 연구 결과물 공유

부산시 체육회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한다.

중고등학교 스포츠 팀
중고등학교 엘리트 스포츠 팀이나 클럽 팀은 대학과 프로팀과 상행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대학 스포츠 팀
프로스포츠 팀과 더불어 중고등학교 및 지역 생활스포츠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개발

생활스포츠 종목단체
각 종목 이벤트행사 시에 부산지역의 프로스포츠팀과 연계한 활동 혹은 이벤트를 기획하여 상호 교류해야 한다.

▲ 그림 1



STRATEGY

상생방안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부산광역시 체육 스포츠 마케팅 전략 함께 펼쳐야

얼마 전 인천광역시는 '인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상생을 선언했다. 인천광역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4대 프로 리그 4개 종목 6개 팀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는 이들 프로팀에 대한 팬의 관심도나 충성도는 강한 반면, 일반 시민이 느끼는 친밀도와 애향심은 낮은 편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스포츠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고지와 프로구단의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6개 프로구단과 함께하는 상생 협의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상생협회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장 등 관계자 2명, 프로구단 각 1명씩 6명, 스포츠마케팅 분야 전문가 1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필자는 이런 노력은 인천체육의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시도이기는 하나 협의체 구성원을 살펴볼 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부산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 노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생 방안 및 부산광역시 체육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필자는 다음(그림 1)과 같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앞장을 서서 프로스포츠 구단과 아마추어 또는 대학 및 생활체육 관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각 종목 단체별로 마케팅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대학의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과 이마를 맞대고 부산체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다. 즉 부산체육의 미래지향적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프로와 아마추어협회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프로는 프로팀대로 대학스포츠는 대학스포츠팀대로 또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각기 다른 마케팅 노력을 추구한다면 부산체육의 스포츠 마케팅은 더딜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부산에서 즐기는 스포츠, 부산에서 개최되는 인기 스포츠,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고향 연고지 팀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대학 스포츠의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책 마련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서울지역의 연고전이나 미국 대학 NCAA 토너먼트와 같이 우리 지역 대학의 스포츠 라이벌전이나 다른 지역과의 대학 스포츠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해 관중들이 구름 떴처럼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될 때,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산체육이 장기적 이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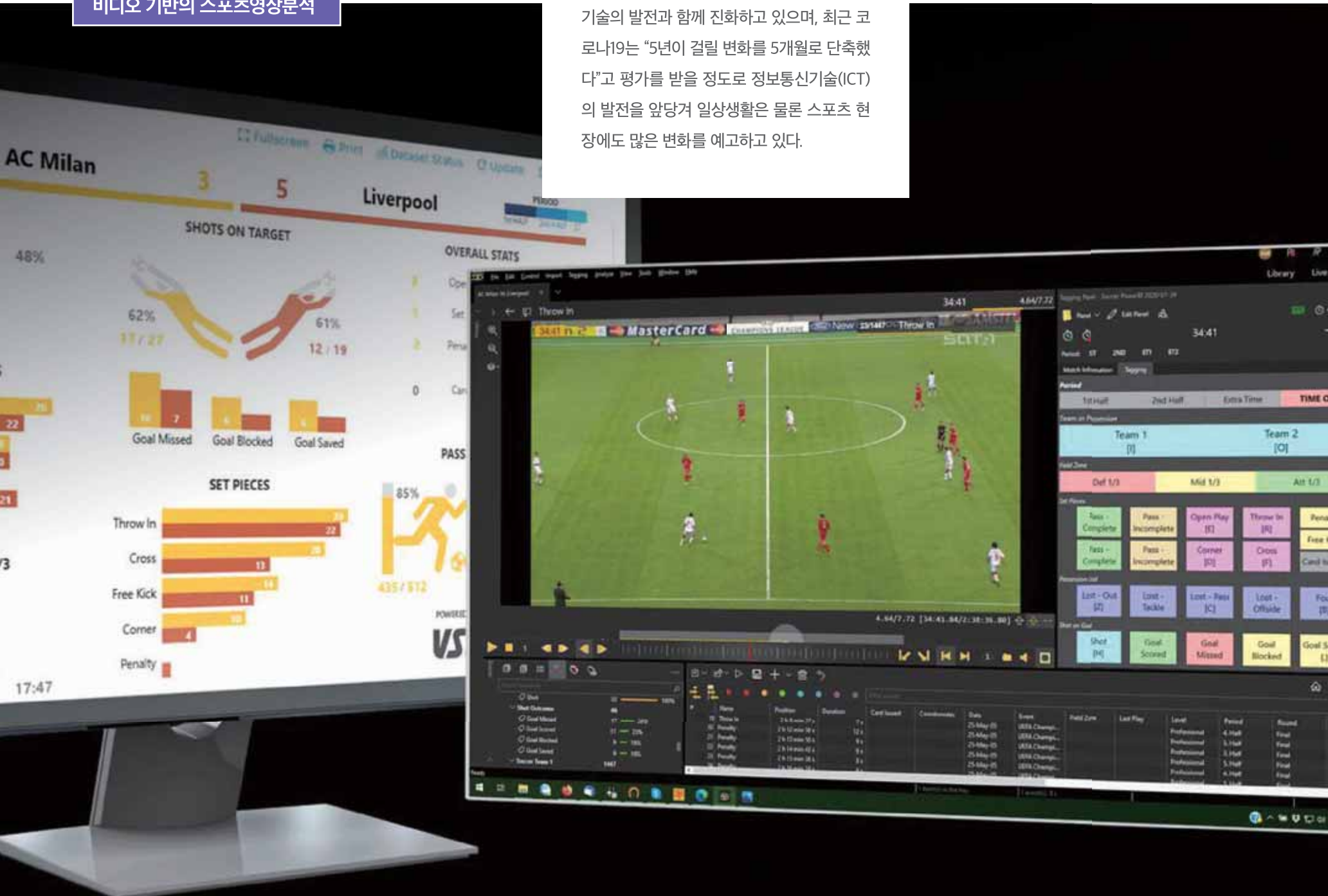
스포츠 영상분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박종철



비디오 기반의 스포츠영상분석

-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스포츠 교류 확대,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의 등장, 디지털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은 평준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과학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경기대회는 총성 없는 스포츠과학 전쟁이라고 비유되고 있다. 스포츠과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는 “5년이 걸릴 변화를 5개월로 단축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앞당겨 일상생활은 물론 스포츠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선수정보, 위치정보, 시간정보, 행동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스포츠부호화 분석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

스포츠과학과 영상분석

김영수 등(2011)의 「스포츠과학이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 연구」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은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메달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24%라고 평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미 스포츠 현장은 과거 경험에 의존한 지도방법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심리기술 훈련방법,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 모델 개발, 상대의 전략 및 전술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예측모델 개발 등 스포츠과학이 적용되고 있다. 스포츠과학 분야 중에서도 영상을 활용한 분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종철 등(2015)의 「스포츠영상분석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영상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가장 선호하며, 경기력과 경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87.8%로 보고되고 있어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영상분석은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분석은 1878년 마이브리지(Muybridge)가 달리는 말을 사진으로 촬영해 연속된 이미지를 통해 움직임을 분석한 것이 시작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의 등장과 발전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영상분석은 운동역학(Sport Biomechanics)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초고속 카메라의 등장은 우리가 몰랐던 인간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움직임을 수량화(Digitizing)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과거 스포츠 현장의 영상분석은 움직임을 촬영하고 편집된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정성적 분석과 시각적 피드백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영상분석과 함께 1970년대 초반 전략 및 전술 분석을 위해 영상에서 나오는 선수정보(Player information), 위치정보(Positional information), 시간정보(Time information), 행동정보(Action information)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스포츠부호화 분석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사진 출처 : Dartfish

영상분석 기술의 발달과 스포츠과학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속촬영 기술이 내장된 광학식 적외선 카메라와 영상 트래킹(Tracking) 기술의 등장은 정보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동화된 계산 방식을 활용한 시각화(Visualization) 기술이 스포츠 현장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적외선 카메라는 인체에 부착된 반사 마커를 실시간 추적해 인체의 각 관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3차원 분석함으로써 동작의 최적화 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부상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상황에서 부상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동작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기술은 프로종목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위해 야구 투수의 피칭동작 분석과 골프 스윙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체에 마커를 부착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고 실제 경기상황에서의 분석이 어려웠지만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마커리스(Markless) 방식의 동작 분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콘솔 게임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적기술을 발전시켜 몸에 마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마커리스 방식의 동작 분석 기술은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MLB(Major League Baseball) 등 프로스포츠 중계에도 활용되고 있어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아직 적외선 카메라 방식보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중요한 종목에서는 동작분석이 활용되고 있지만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종목에서는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경기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유럽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우리나라 프로축구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선수정보(Player information), 위치정보(Positional information), 시간정보(Time information)는 물론 학습된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해 선수의 동작을 판단해 행동정보(Action information)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는 클라우드(Cloud)를 통해 지도자, 선수에게 정보전달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은 진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그에 따라 스포츠 현장의 영상분석은 자동화, 다양화될 것이지만 로봇이 인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움직임을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신호전달체계는 인간만이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영상분석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 모두가 함께 고려되었을 때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위한 분석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영상에서 나오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우리 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계산과정은 자동화되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은 인간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Sports Science



사진 출처 : Qualisys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동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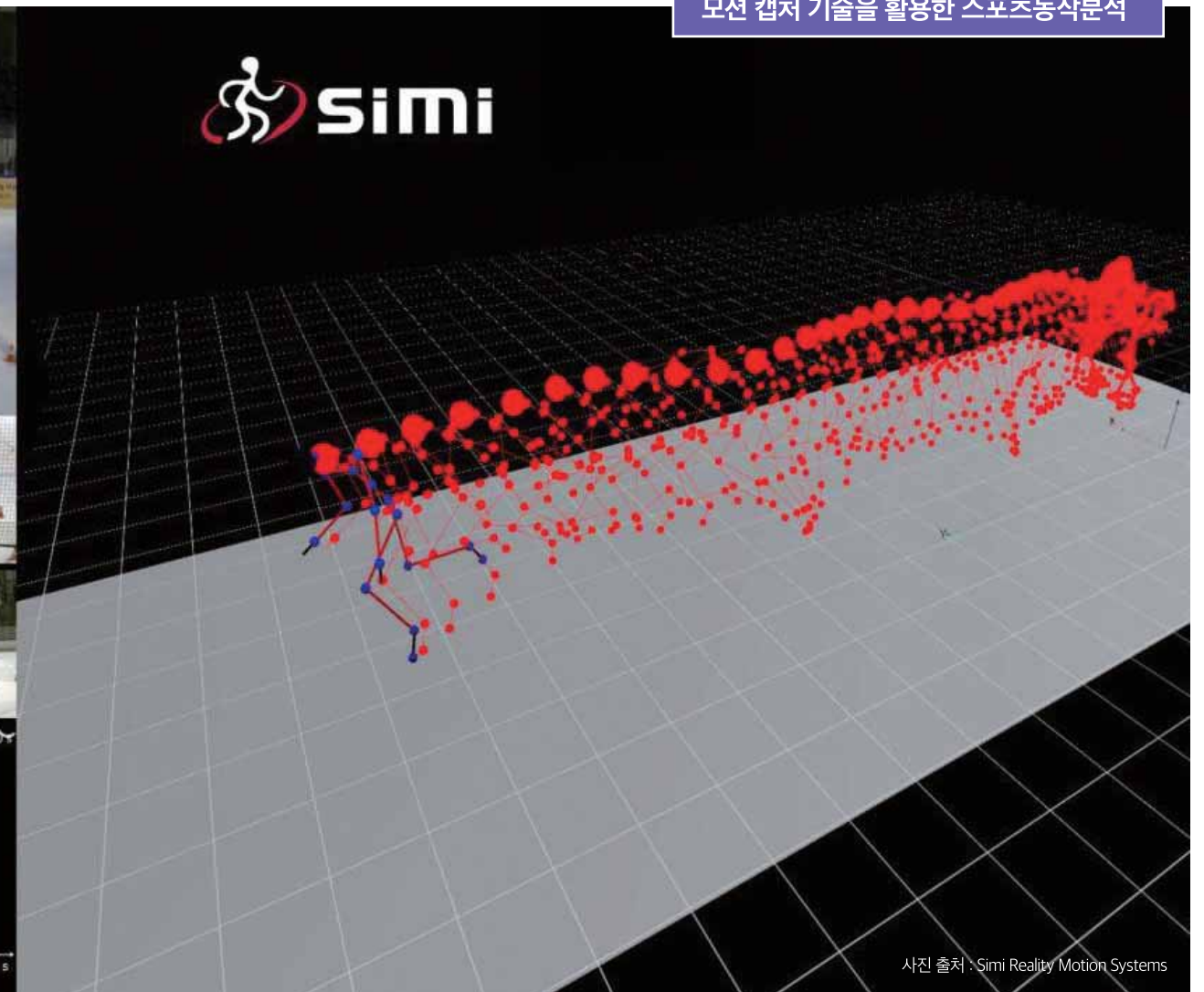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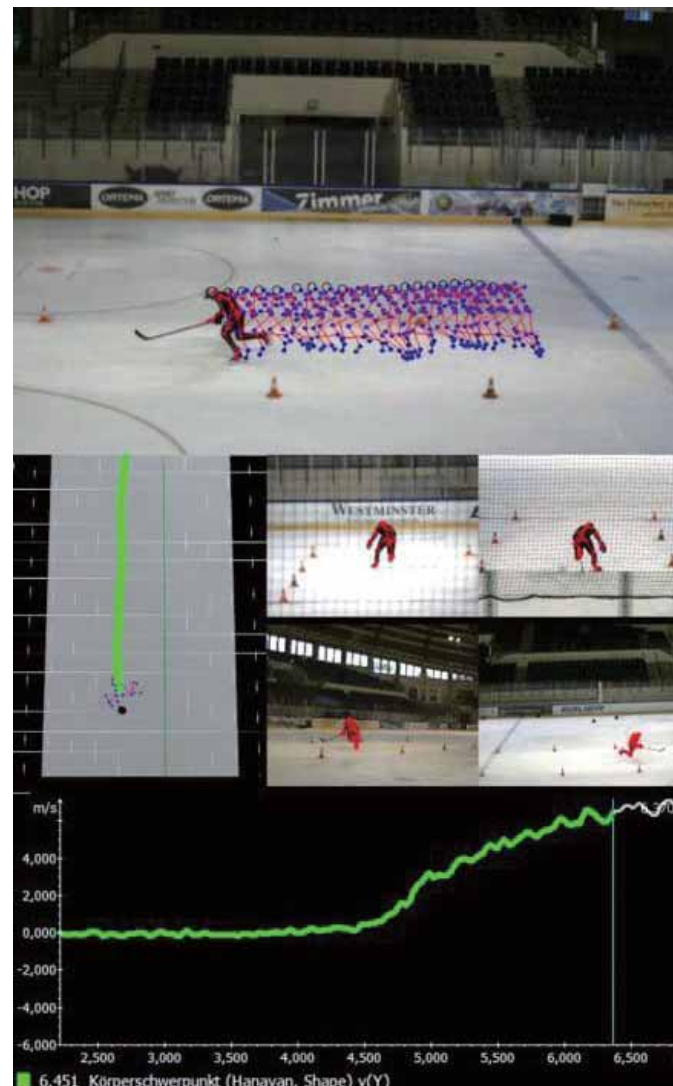


사진 출처 : Simi Reality Motion Systems



부산의 중심 도시에서 부산체육의 발전 핵심 도시로!

서구체육회

오랫동안 부산의 행정·교육·법조·의료 해양수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광역시 서구. 사방으로 연결된 편리한 교통망과 명문학교, 종합병원, 대신공원 게다가 1985년 사직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시민운동장이었던 구덕운동장이 자리한 서구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두루 갖춘 원도심 중추 도시로 불렸다. 살기 좋은 서구에서 2016년 서구생활체육회와 서구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서구체육회는 지금까지 13만 서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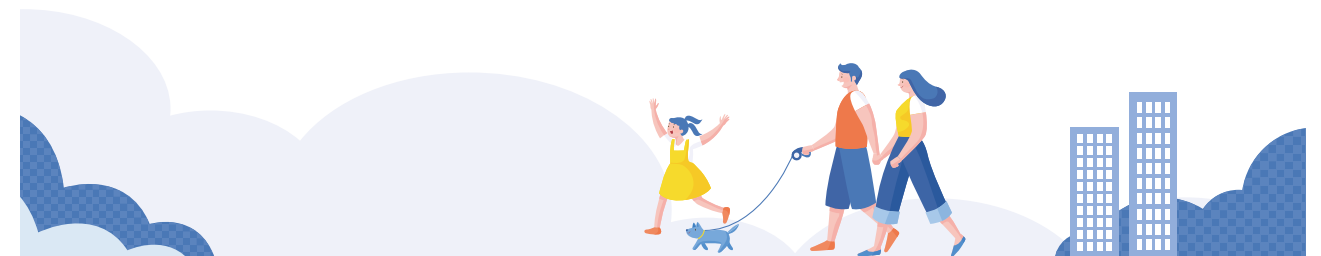
“ 서구체육회에는 게이트볼, 탁구, 축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72개 클럽 2,045명의 동호인이 속해 있어요. ”

탄탄한 내실, 든든한 실력 갖춘 서구체육회

지난 2020년 1월 15일 서구체육회는 민선 1기 김용구 회장을 선출했다. 김용구 회장을 필두로 조현서 사무국장과 체육 전공자 출신인 어르신 지도자 2명과 일반 지도자 3명은 서구체육회를 이끄는 주축이다. 지도자마다 역량이 탄탄하며 지도자 중에는 카바디 선수 출신도 있다. 김용구 회장이 서구에 머문 세월만 해도 40년을 훌쩍 넘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스포츠를 좋아했던 그는 부산시 마라톤대회에 30회 이상 참가했고 테니스협회장으로도 역임하는 등 생활체육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지역사회 봉사에도 열의를 다하면서 서구체육회와 연을 맺은 김용구 회장.

“서구체육회에는 게이트볼, 탁구, 축구, 테니스 등 16개 종목 72개 클럽 2,045명의 동호인이 속해 있어요.”

수년 전만 해도 서구체육회 게이트볼 종목 역시 강세였다고 한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면 우승은 떼놓은 당상, 하지만 게이트볼 선수인 어르신들이 고령이 되면서 주춤하더니 2년 전부터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서구체육회의 역사 속에 빛나는 순간, 아쉬운 장면을 들려주는 김 회장의 모습에서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졌다.





해양스포츠 주도,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수업 진행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상 체육회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현장 수업도 확 줄었고요. 대한체육회 지침으로 매달 3건씩 3분에서 8분짜리 운동 수업 동영상 제작해 부산광역시에 보내고 부산광역시 서구체육회 네이버 밴드에도 올렸어요. 정부에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Home training)나 다이어트 댄스, 요가 수업 영상을 제작해 실내에서라도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독려한 거죠. 서구체육회 네이버 밴드는 작년 3월쯤 만들었는데 현재 회원 수는 백여 명 정도예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더 많은 지역민이 저희가 마련한 서구체육회 네이버 밴드에서 운동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바람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예전처럼 한 공간에 모여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거랍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평범한 일상을 바란 적이 있었을까. 2년째 서구체육회에 몸담아온 조현서 사무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체육회의 모든 활동이 축소, 폐지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서구체육회는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비치발리볼(Beach volleyball)이나 비치사커(Beach soccer)와 같은 해양스포츠 관련 사업을 펼쳐왔는데 타 체육회와 차별화되는 서구체육회만의 자랑이다. 매년 남항대교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걷는 남항대교 시민건강걷기대회,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열었던 서구체육회, 서구 지역이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데다 나날이 노년층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넓혀왔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준비, 진행하면서 노인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하다.

서구 체육인의 밤 비롯해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 그려



“서구를 빛낸 체육인 하면 1984년 LA올림픽경기대회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유도 스타인 하형주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특히 서구는 청소년 체육이 강세인데, 예전부터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면 수영과 야구 등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서구를 빛낸 체육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생각으로 작년 11월 말에 서구 체육인의 밤을 진행하려고 준비했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행사가 무산되었죠. 아쉬움이 컸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올해 하반기에는 꼭 서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려고 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해야 할 일도 하고픈 일도 많다는 김 회장은 지난해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서구 체육인의 밤’이 못내 아쉬운 듯 올해만큼은 꼭 성사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구민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으로 출장을 나갔던 서구체육회 지도자들은 올해 4월부터 서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말에 진행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사업과 서구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참여를 이끄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1-리그 축구 유치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 8팀으로 구성(유치부, 초등 1~6학년, 중등부)돼 있는데 연중 6회 30팀이 참가하는 교류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사업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6월 서구체육회가 법안화되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계획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건립하기 전까지는 다른 체육복합시설과 연계해 서구 관내 그리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어려움 겪으면서 체육회의 다양한 활동이 더딘 상태지만 서구체육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서구체육회 대표 수상내역

2017년

- 제1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공동 3위
- 제12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체조 준우승

2019년

- 제14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우승 (60~69세 여자)
-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태권도 단체전 2위

2018년

- 2018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서구 중년부 3위(장진규)
- 제13회 여성체육대회 체조 공동 3위
-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볼링 우승
- 제29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태권도 장려상

20년 만의 값진 승리, 만리장성을 넘어선 금빛 물결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농구 결승전

2002년 9월 29일 오후 6시, 아시아경기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44개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 선수와 임원 9,767명이 참가한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됐다. 370만 부산시민과 40억 아시아인들이 7년여를 기다려 온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대회에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의 금자탑을 이뤄내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중국에 이은 종합순위 2위라는 화려한 기록. 그 가운데서도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안겨준 남자 농구 결승전은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최고의 빅게임으로 손꼽힌다.

Korea VS China

남자 농구 결승전, 기적과도 같았던 금빛 신화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204cm인 중국은 심지어 아시아 팀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미국프로농구) 소속 야오밍 선수까지 보유한 강팀이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95cm, 남자 농구 결승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은메달에 만족하자는 말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226cm의 키로 '걸어 다니는 만리장성'이라 불리던 야오밍 선수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건 그날의 경기는 모두의 예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연장전까지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던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나라는 102 대 100이라는 근소한 점수 차로 중국을 이기고 우승을 만끽할 수 있었다.

매직 히포 현주엽 선수의 환상적인 레이업 슈트(Layup shoot)와 김승현 선수의 재치 있는 인생 패스, 이상민 선수가 선물해준 3점 슈트와 문경은 선수의 마무리 바스켓 카운트(Basket count)까지. 서장훈 선수가 가장 이기고 싶어 했다는 이 경기에는 야오밍 선수와의 정면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부산 동아고등학교 출신 김주성 선수의 역할도 컸다.

수많은 부산시민과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대한민국 특유의 근성과 끈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얻어낸 황금빛 승리. 2002년 10월 1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금빛 신화가 펼쳐진 것이다.

“ 2002년 10월 14일,
기적과도 같은
금빛 신화가
펼쳐진 것이다.”



치열한 접전 끝에 얻어낸 극적인 연장전



중국은 1쿼터 초반부터 5 대 16으로 한국을 압도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 우리나라에게 후반부인 3쿼터부터 흐름이 넘어오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48 대 59 시점, 이상민 선수가 깔끔한 패스로 중국의 최장신 야오밍의 공격을 끊어내며 공격권을 탈환한 것이다. 전희철 선수의 3점 슈트 득점과 서장훈 선수의 인터셉트(Intercept)에 이어진 원 핸드 덩크 슈트(One-hand dunk shoot)과 3점 슈트로 우리나라는 점수 차를 한 자릿수로 좁혀나갔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근성은 더욱 살아났다. 카메라조차 미처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 인터셉트로 득점을 이어 나가며 우리나라는 강한 대인마크로 공격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투혼에도 점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접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이 방심한 틈을 탄 김승현 선수의 매끄러운 패스와 현주엽 선수의 묵직한 레이업 슈트는 우리나라의 점수 추격에 박차를 가했고, 문경은 선수의 3점 슈트로 2점 차까지 따라붙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킬러로 유명했던 후웨이동 선수의 프리 스로(Free throw) 범실 이후 우리나라는 리바운드로 빠른 역습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찬스를 놓치지 않은 현주엽 선수의 레이업 슈트 동점을 얻는 데 성공한 순간은 종료 4.7 초 전이었다. 야오밍 선수가 리바운드에 이어 덩크를 성공시켰으나 이미 4쿼터 종료 버저가 울린 뒤였고 경기는 극적으로 연장전에 돌입했다.



손에 땀을 쥐는 연장전 끝의 값진 승리

드디어 시작된 연장전, 점프볼을 가져간 것은 중국의 야오밍 선수였다. 그러나 김승현 선수의 재치 있는 인터셉트로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고 서장훈 선수의 3점 슈트 터지며 점수는 93 대 90으로 역전됐다. 하지만 이어진 파울로 2점을 허용, 김승현 선수의 다채로운 패스 플레이와 현주엽 선수의 중거리 2점 슈트로 다시 3점 차를 만들며 엇치락뒤치락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됐다.

경기 종료 2분 전, 점수는 97 대 94. 우리나라 김승현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코트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주변을 보는듯한 시선 처리를 이용해 허를 찌르는 패스. 이는 곧바로 문경은 선수의 골밑 슈트 득점으로 이어졌다. 김승현 선수는 후일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패스로 이때를 꼽았다.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파울로 중국의 프리스로 찬스도 이어졌다. 후웨이동 선수의 득점으로 101 대 100까지 이어진 초접전 상황 그리고 경기 종료 4초 전, 중국의 파울로 우리나라 문경은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얻었고 중국의 역습 실패로 경기는 102 대 100, 대한민국의 드라마틱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1982년 이후 20년 만에 중국을 뛰어넘어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농구 결승전은 마라톤경기보다 늦게 마무리되며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미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금메달이 더욱 값진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나간 우리나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자(단체) 농구 금메달 리스트

- 김승현 | 김주성 | 문경은 | 방성윤
- 서장훈 | 신기성 | 이규섭 | 이상민
- 전희철 | 조상현 | 추승균 | 현주엽



ISSUE & FOCUS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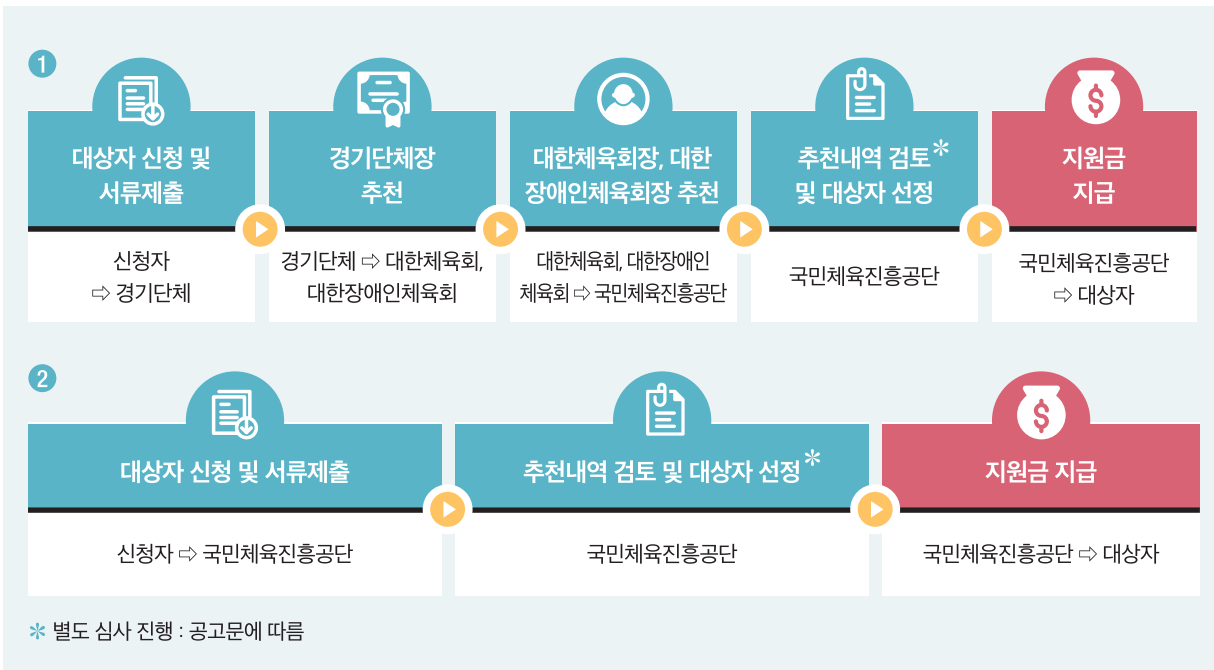
연금을 받는 선수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현역 또는 은퇴 국가대표이며, 체육전문가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
* 상세 자격조건은 모집공고 참조

모집시기

연초 공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접속 후 [공지사항] 참고

선정 및 지급절차

1, 2 중 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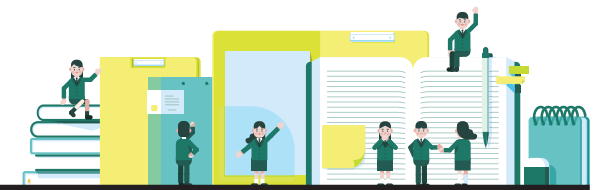
지급내용

1인당 월 50만 원(사업기간 내 최대 12개월)

사후관리

중간 활동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연 2회)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급대상

은퇴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모집시기

상·하반기 공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접속 후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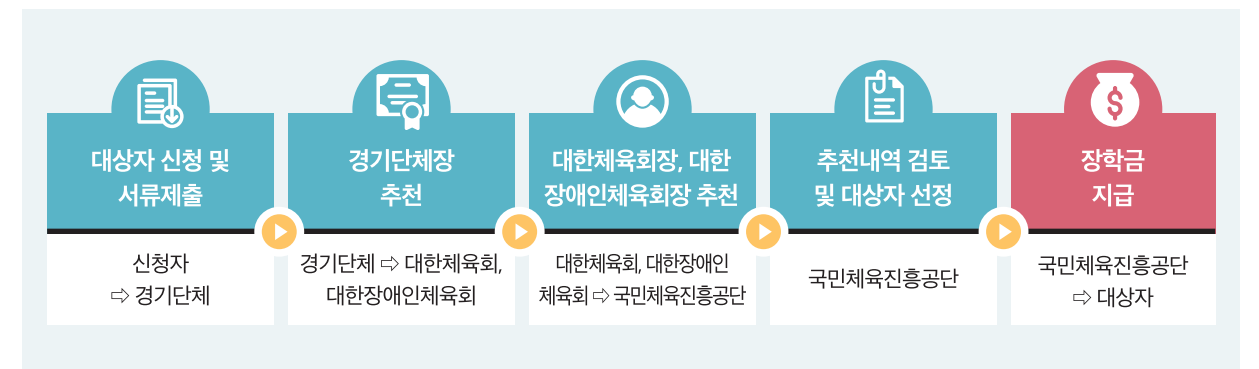
학기당 300만 원 이내(입학금, 등록금), 4학기까지 지원
* 단, 기존 지원대상자는 계속 지원 신청 후, 중지·취소 사유가 없을 시 지급 확정

지급중지 및 취소

국가대표 선수 복귀, 교육기관 및 학과 변경, 서류 미제출, 휴학, 직전학기 평균 평점 B0 미만인 경우 등



선정 및 지급절차



welfare program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Roller Sports

스피드의 진수! 그라운드 위의 쇼트트랙, 롤러스포츠

하절기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신운동이자 도로를 달리는 다른 스포츠보다 위험성이 낮은 스포츠로 알려진 롤러스포츠(Roller sports). 허리와 하체 근력에 도움을 주며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롤러스포츠는 장비의 휴대가 간편하고 유아기 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친환경 생활 스포츠다. 더구나 롤러스포츠 장비는 한번 사면 3~4년은 충분히 쓸 수 있고 부품만 갈아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롤러스포츠의 세부종목을 알아보자!

Speed



롤러스포츠(Roller sports)는 쿼드 스케이트(Quad skate)나 인라인스케이트(In-line skate) 및 스케이트보드(Skate boarding) 등과 같이 바퀴를 이용한 스포츠를 모두 포함하는 종목들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롤러스포츠는 바퀴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아우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월드 스케이트(World skate)는 총 12개의 세부종목을 관장하고 있는데 스피드(Speed), 인라인 하키(Inline hockey), 인라인 프리스타일(Inline freestyle), 아티스틱(Artistic), 스케이트보드(Skateboarding), 롤러 프리스타일(Roller freestyle), 롤러 더비(Roller derby), 인라인 다운힐(Inline downhill), 인라인 알파인(Inline alpine), 링크 하키(Rink hockey), 스쿠터(Scooter), 스케이트 크로스(Skate cross)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스피드 종목을 가장 많이 즐겨왔으며 국제적으로도 경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체종목인 인라인 하키와 비교적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라인 프리스타일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2024년 파리올림픽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은 현재 스피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하키, 인라인프리스타일, 롤러 프리스타일, 아티스틱 종목을 관장하며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세부종목별 경기 방법

Speed



스피드

롤러스포츠 세부종목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종목으로 빠른 속도를 기본으로 순위 또는 기록으로 우열을 가린다. 경기 장소에 따라 200m 뱅크 트랙에서 경기를 하는 트랙경기, 일반도로에서 하는 로드 경기 및 인라인 마라톤(Inline marathon)으로 구분된다.

Skate Boarding



스케이트보드

데크(Deck)라고 하는 둥근 모서리의 길쭉한 판에 바퀴가 달린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해 계단, 하프파이프(Half pipe) 등 기물을 미끄러지듯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뒤집고 점프하면서 공중 동작을 펼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점수를 평가하고 순위를 가리는 경기이다.

Inline Hockey



인라인 하키

롤러스포츠 세부종목 중 단체종목으로 분류하며 5명(플레이어 선수 4명, 골리 1명)으로 구성된 양 팀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스틱(Stick, 나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으로 퍽을 상대 진영으로 드리블(Dribble)하여 골 케이지에 넣으면 득점하는 방식이다. 스틱과 퍽이 아이스하키와 유사성을 가진다.

Inline Freestyle



인라인 프리스타일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바닥에 놓인 콘을 빠르게 통과하거나 음악과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 연기를 펼쳐 예술성과 기술로 점수를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경기이다.

Roller Freestyle



롤러 프리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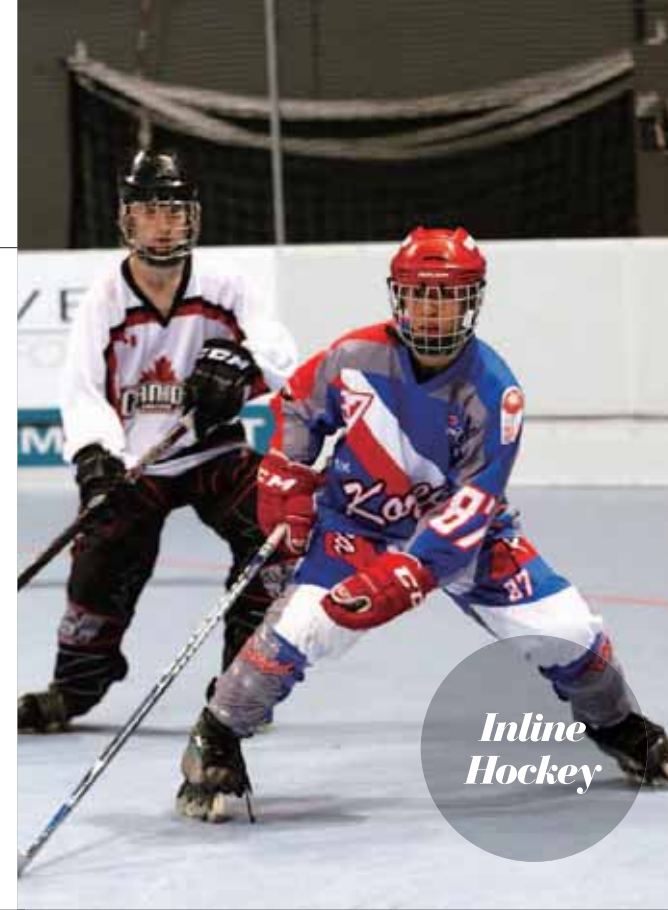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어그레시브(Aggressiv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통상 반원통인 하프파이프의 구조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그라인드, 점프, 공중회전 등 다양하고 난도가 높은 기술로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

Artistic



아티스틱

영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롤러스포츠 세부종목 중 가장 예술성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빙상의 피겨스케이팅과 유사한 기술을 구사하는 프리, 피겨, 페어, 댄스, 프리시전(자유 전개), 쇼, 인라인 등의 세부 경기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프리스케이팅은 빙상의 피겨스케이팅과 거의 유사한 기술을 구사하며 채점방식 또한 유사하다.



Inline Hockey



Skate Boarding



Inline Freestyle

롤러스포츠 즐길 시 유의사항

바퀴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시속 50km가 넘을 정도로 빠르면서도 누구나 손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롤러스포츠. 상대적으로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스포츠로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친화형, 생활친화형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스올림픽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및 올림픽경기대회 등 연령대별, 종목별로 다양한 종목이 국제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나날이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피드 종목의 경우 인간의 질주본능을 실현해줄 수 있는 스포츠이지만 그만큼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초보자가 헬멧(Helmet)과 보호대(무릎, 손목, 팔꿈치)와 같은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전한 스케이팅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과 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도록 한다. 이러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크고 작은 부상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 안전한 장소에서 스케이팅을 타는 것 또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들이 많거나 자동차,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스케이팅을 즐기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나 실외에 마련된 인라인 전용경기장에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간에 스케이팅을 타면 밝은 색 옷이나 형광 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권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Inline Freestyle

봄을 맞아 비상하는
갈매기처럼
새 마음 새 뜻으로
걸어보는

부산 갈맷길 Tour,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우리 걸을 찾아왔다. 이제 추운 겨울은 뒤로하고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다시 일깨울 시간이다. 한결 따스해진 햇살 아래 꽃망울과 연둣빛 잎사귀들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금,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갈맷길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야외운동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갈매기를 따라 걷는 9코스의 갈맷길

부산의 상징이자 부산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갈매기 덕분에 부산 곳곳에 퍼져 있는 산책길의 이름 역시 갈맷길이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어느덧 산속이고 산을 벗어나면 강이 이어지며 몸이 노곤해질 때쯤 온천이 나타나는 길. 고조선 시대부터 현대 역사까지, 고대 예술에서 현대 예술까지, 전통놀이부터 현대의 축제까지 모두 마주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축제의 길. 부산 갈맷길은 강과 바다,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의 삼포지향(三抱之鄕)에 온천을 더해 사포지향(四抱之鄕)이라는 부산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갈맷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야외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구간별로 다양한 모습의 부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운동이나 짧은 구간을 반복하는 야외운동과는 달리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9개 코스 21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갈맷길의 총 길이는 278.8km로 모두 완보하려면 어른 걸음으로 91시간 정도가 걸린다.

갈맷길 1코스는 총 33.6km의 길로 1-1구간은 임랑해수욕장~기장군청, 1-2구간은 기장군청~문탠로드다. 2코스는 총 18.3km로 2-1구간은 문탠로드~민락교, 2-2구간은 민락교~오륙도 유람선착장이며, 3코스는 총 41.0km로 3-1구간은 오륙도 유람선착장~부산진시장, 3-2구간은 부산진시장~남항대교, 3-3구간은 남항대교~아름공원 입구이다. 4코스는 총 36.3km로 4-1구간은 남항대교~감천항, 4-2구간은 감천항~물운대, 4-3구간은 물운대~낙

동강하굿둑이고, 5코스는 총 42.1km이며 5-1구간은 낙동강하굿둑~천가교, 5-2구간은 천가교~연대봉~천가교, 6코스는 총 47.5km로 6-1구간은 낙동강하굿둑~구포역, 6-2구간은 구포역~성지곡수원지(어린이대공원), 6-3구간은 구포역~금정산성 동문이다. 7코스는 총 22.3km이며 7-1구간은 성지곡수원지(어린이대공원)~금정산성 동문, 7-2구간은 금정산성 동문~상현마을이고, 8코스는 총 17.2km이며 8-1구간은 상현마을~동천교(석대다리: 해운대 방향), 8-2구간은 동천교(석대다리: 해운대 방향)~민락교, 마지막 9코스는 총 20.5km로 9-1구간은 상현마을~이곡마을, 9-2구간은 이곡마을~기장군청이다. 말 그대로 갈맷길을 완주하면 부산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갈맷길에는 구간별 시작점, 중간점, 종점마다 39개소의 인증대가 설치되어 있어 도보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보인증제는 단순히 길을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미학으로 머물며 보고 즐길 수 있는 갈맷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도보인증수첩을 수령해 갈맷길을 걸으면서 스탬프를 찍고 완주 인증을 받아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도보인증수첩은 각 시·구·군, (사)걷고싶은부산에서 수령 또는 부산광역시청 갈맷길 소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수첩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활용해 QR 코드 방식으로도 도보인증이 가능하다.

야외에서 즐기는 플로깅과 클린 갈맷길 캠페인

이처럼 갈맷길을 걷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플로깅을 주목해보자.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에 조깅 ‘Jogging’이 합쳐진 말로 작은 가방이나 비닐 봉지를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걷기를 통해 운동 효과는 물론 자연보호로 환경도 지키는 일거양득의 활동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부산의 16개 구·군별로 1개소씩 동시다발적으로 운영,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플로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 간간이 진행돼 왔지만 광역체육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생활체육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플로깅이 부산의 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로 발전한다면 이색적인 볼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플로깅 행사 장소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체육 활동의 주안점을 ‘비대면을 통한 시민 건강·복지 증진’에 두고 플로깅 행사와 함께 ‘클린 갈맷길 캠페인’도 추진한다. 바다, 강, 산, 온천이 있는 지역 특성을 담은 갈맷길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도 증진하기 위해서다. ‘클린 갈맷길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구·군체육회와 함께 부산의 갈맷길 1~9코스 21개 구간에서 진행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체육활동을 즐기기 힘든 요즘. 부산을 오롯이 품고 있는 갈맷길 걷기,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로깅, ‘클린 갈맷길 캠페인’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한 활기찬 봄을 맞이해 보자.

TIP

POINT

갈맷길 도보 여행 시 유의사항

-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5시)까지 이용 시간을 지켜주세요.
- ☑ 가급적 여러 명이 함께 걸으시고, 혼자 걸을 때에는 수시로 자기 위치와 안전 여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 ☑ 코로나19 기간에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 ☑ 코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내 지도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노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 ☑ 이정표의 현재 위치정보를 확인하시면서 걸으시고 긴급상황 시 경찰과 소방서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 ☑ 간편하고 계절에 맞는 복장과 트레킹화를 착용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지참하세요.
- ☑ 걷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풀 후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 ☑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지날 때는 길가에 붙어서 걸어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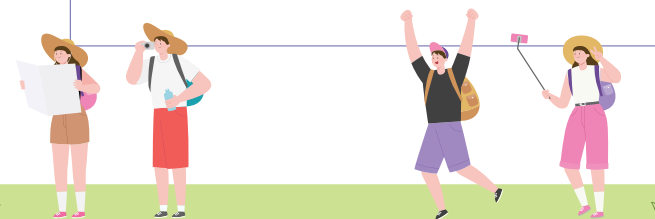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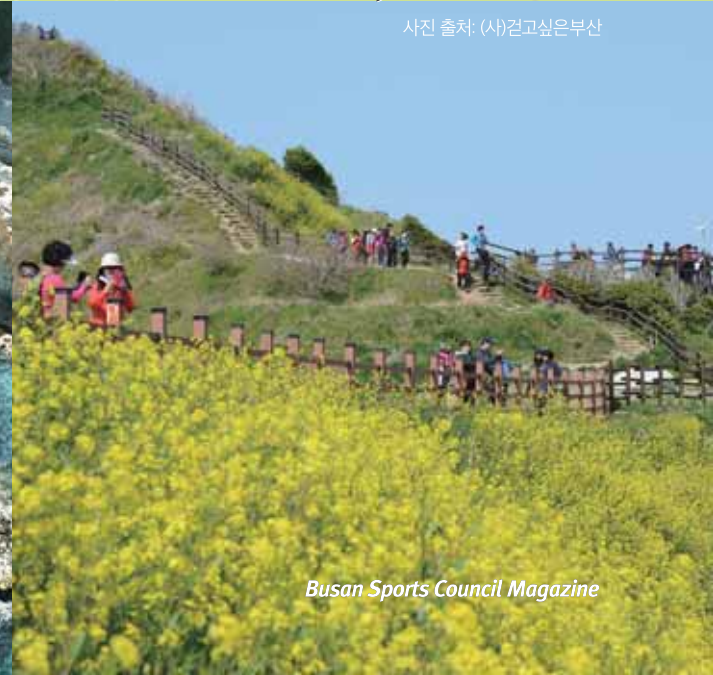


사진 출처: (사)걷고싶은부산



현대인의 고질병, 스마트폰 중독과 퇴행성 척추측만증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뤄지는 세상,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척추측만증으로 이어진 현대인들, 고질병이 된 스마트폰 중독과 퇴행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아보자.



smartphone addiction

물질 중독과 비슷한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다른 일상 행동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청색광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생체리듬이 깨질 수 있다. 인체는 눈(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낮과 밤을 인식해 생체리듬을 조절한다. 밤 시간에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인체가 낮과 밤을 혼동해서 수면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게 된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2.19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2.24배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고 최근 1년간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 사람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심하면 뇌기능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크고 호르몬도 변하게 된다. 대뇌 보상회로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문제가 생겨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마약 등의 물질 중독과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위험도 또한 다른 물질 중독과 다르지 않다.

성장장애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예방이 필수

장시간 화면을 보다 보면 안구건조증 등의 안과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자세가 나빠 성장장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대부분 빠르게 전환돼 시청각 자극만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아가 성장 시 좌우 뇌가 고루 발달하지 못하는 불균형으로 인해 공감 능력, 감정 조절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화면을 볼 때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척추측만 증뿐만 아니라 만성 거북목증후군이나 손목터널증후군을 앓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통증을 동반해 뼈 성장을 방해하고 목이 휘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만성 증후군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의 경우 말을 안 듣거나 떠들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다양한 다른 놀이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는 규칙을 정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어른의 경우라면 식사시간이나 대화시간 등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다 함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

- 수면장애**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
- 안구건조증** 눈물의 분비가 줄어 안구가 건조해지는 증상
- 집중력 저하**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정신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 성장장애** 영아, 소아의 체중과 성장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상태
- 거북목증후군** 잘못된 자세로 목,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
- 손목터널증후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반복 사용해 손목의 신경과 혈관, 인대가 지나가는 수근관이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



Scoliosis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원인

척추 측만(側彎, Scoliosis)이란 전·후면 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직선을 이뤄야 하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불균형을 초래해 주위의 장기를 압박하고 심폐기능을 저하시킨다. 요통과 기형부의 동통을 유발하며 척추의 조기 퇴행성 변화를 초래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척추측만증은 주로 청소년기의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에게도 측만 상태가 많이 나타난다.

척추측만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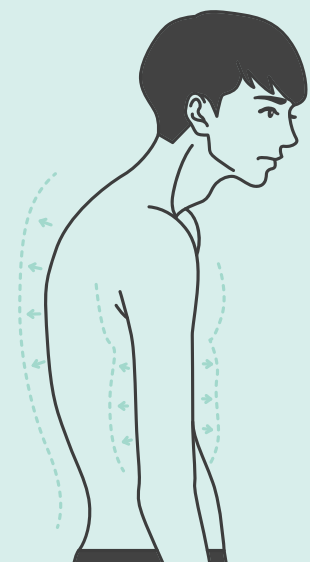
임상증상

허리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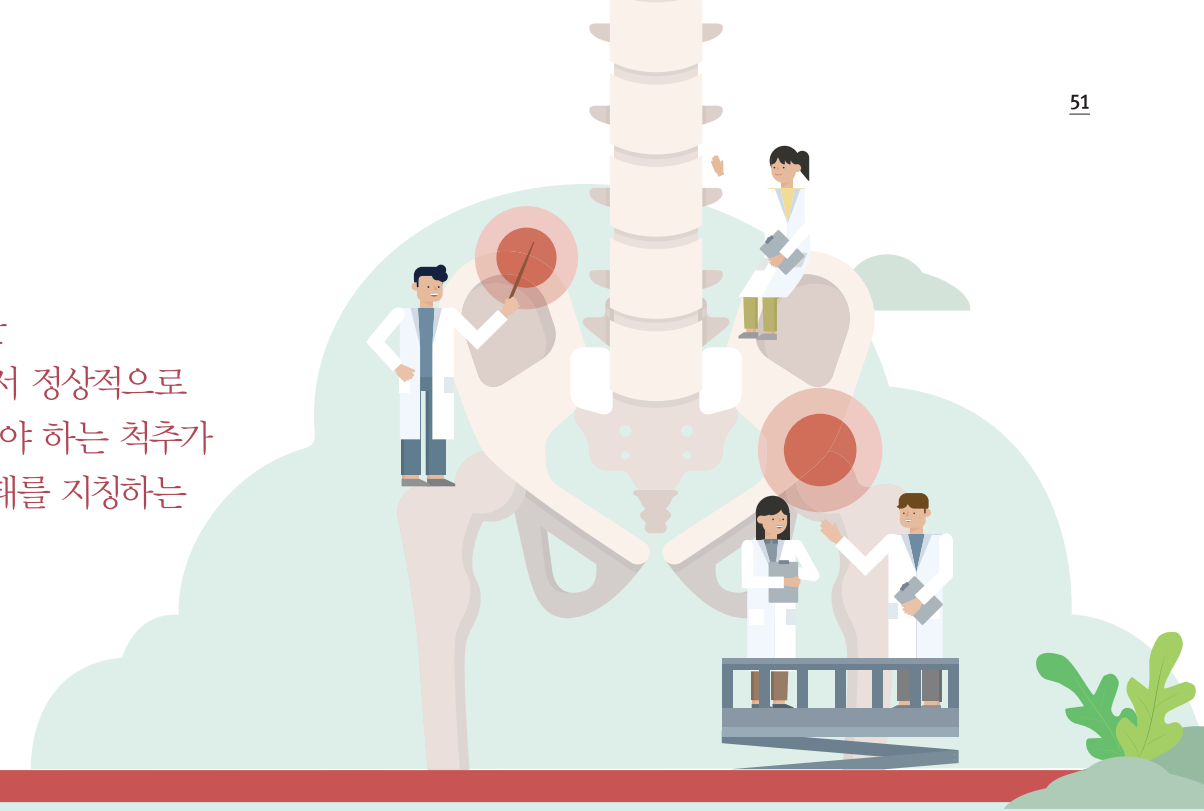
성인에게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이다. 통증의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성인 척추측만증 환자의 60~80%에서 나타난다. 추간판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척추 변형이 오는데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에서는 변형이 일차적인 증상이지만 성인의 척추측만증에서는 오히려 요통이나 신경 증상이 더 주된 증상이다.

신경 증상에 의한 하지 방사통

성인에게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에서 하지 통증은 간헐적 파행이나 하지 방사통으로 나타나며 척추관협착증이 주요 원인이다. 주로 만곡의 오목부에서 추간공이 좁아지거나 후관절 비후와 척추체의 회전 아탈구가 원인이 된다. 신경근이 척추경과 추간판 사이에 끼어 눌리면서 하지 방사통을 일으킨다. 만곡의 볼록부에서는 신경근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척추 측만이란 전·후면 상에서 정상적으로 일직선을 이뤄야 하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척추 변형

척추 변형은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방사선상 변형이 심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변형을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변형은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인 열등감을 유발해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심폐기능 저하

성인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심폐기능 저하는 흔하지는 않지만 흉추 만곡이 80° 이상으로 측만증이 심한 환자에게 호흡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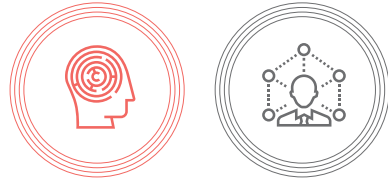
치료

치료의 목적은 요통의 감소, 하지 방사통과 파행의 완화 및 변형의 교정이다. 성인 척추측만증 환자의 통증 치료는 일반 척추 통증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하지 방사통과 파행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보존적 치료에 듣지 않는 통증, 심한 하지 방사통 신경 증상, 관상면 및 시상면 불균형, 만곡이 진행되는 경우, 심한 외관상 변형이 있는 경우, 척추 변형으로 인한 호흡 장애 등이다. 수술 방법에는 크게 감압술만 시행하는 방법, 감압술과 함께 만곡의 일부 분절만 유합하는 방법, 감압술과 함께 만곡의 전체 분절을 유합하는 방법이 있다.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고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적응증 및 합병증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1월호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0년 2월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

홀로서기, 괜찮은 어른이 되는 첫걸음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를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버릇, 오래된 마음의 상처, 습관적 외로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거기에 의지하는 한, 삶은 계속 휘청일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마음을 무언가에 기대고 그런 의존성 때문에 고통 받는 일에서 벗어나는 길. 홀로서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홀로서기 심리학」



저자 라라 E. 필딩
출판사 메이븐

흔들리는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홀로서기는 타인에, 감정에, 나쁜 습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며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이것이야말로 홀로 설 때 비로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로서 15년 이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라라 E. 필딩은 각종 심리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지나치게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원인에 몰두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끝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내면에서는 옳듯이 홀로 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 마음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를테면 타인의 마음이나 평판, 세상일, 불현듯 닥치는 위기는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은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비록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결국 인생도 변화하게 된다. 홀로 서게 되면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으며, 감정의 기복이 적고,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니 자연스레 인간관계 역시 좋아지고 삶도 부드러워진다.

홀로서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홀로서기는 감정이나 생각, 행동 등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과 사랑,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일,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홀로서기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이며, 선택은 곧 자존감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을 쉽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선택을 주저하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선택지와 장단점을 적어보는 등 꾸준한 연습을 통해 사소한 일일지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느끼는 연습도 중요하다. 타인이 좋다고 하는 일만 잘하려고 노력하면 주어진 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다.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한지 알기 힘들다면 감정 훈련도 필요하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인 변연계를 자극하는 활동이 좋은데, '소설 읽기'가 그중 하나다. 소설에는 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어휘가 등장하는데 그런 어휘를 읽는 것만으로도 변연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아하는 일을 할 힘이 남지 않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할 일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 보자. 무작정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중요도 순으로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분야를 골라 관련된 목표를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일과 자기계발	☑
연애	☑
우정	☑
재정 안정성	☑
여가	☑
건강, 웰빙, 자기관리	☑
육아	☑
교육	☑
가족	☑
지역공동체와 정치활동	☑

부산광역시·구·군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SPORTS NEWS

지난 2월 9일(화)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외 16개 구·군 체육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과 고용노동부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실시, 대한노인체육회 관련 대응사항, 대한체육회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체육회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문제이며 학생 200명당 1명씩 정규직 스포츠 지도자를 배치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스포츠 지도자 강사를 늘려서 학교체육을 지원한다면 결국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현재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 처가 나누어진 실정인데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체육에 관한 통합관리가 필요, 이를 위해 국가체육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년에 2번 정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구 회장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1박 2일 연수를 실시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는 등 교류와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추진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후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6개 구·군 체육회장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동래구체육회 장준용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클럽,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얘기했다. 연제구체육회 김진근 회장은 구체육회의 집행 가능 예산과 선거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지원 가능 여부와 체육회의 실정에 맞는 표준조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회장은 지역의 대표선수들의 급여 지원을 언급했고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은 체육회 임원(이사)과 사무국장의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임 제한 폐지를 얘기했다.

다양한 질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체육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개최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3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포츠 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최근 부산체육계 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종찬 강사의 주재 아래 ▷체육계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 ▷폭력·성폭력 사건에 관한 징계 규정 안내 ▷스포츠인권센터 업무 및 이용 안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관내 실업팀 선수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선수 개별상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연중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 선수들과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기적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 4대 약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군체육회

중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1월 22일(금) 오전 11시 광복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21년 중구체육회 임원 사항 보고 및 주요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 제명 보고, 2020년도 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결산(안) 등의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회의를 개최했다.

영도구체육회

정기 이사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월 22일(금)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영도구 체육회장, 영도구청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감사보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결과, 법인설립 관련 안내를 보고했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2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차회의 요약보고와 회원단체 보고, 대의원 구성 보고와 임원 선임 보고 등 이날 보고한 안건이 승인되었고 성황리에 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동래구체육회

짐볼을 이용한 코어 트레이닝 영상 제작 홍보 및 회원 배포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월 27일(수) 사단법인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동래구체육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짐볼을 이용한 코어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를 했다. 짐볼을 이용한 6가지 동작과 코어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됐다. 출연자는 동래구체육회 장서연, 강민경, 진혜진, 남나라, 김유송, 신수빈 지도자이다.

※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v=ll_q-g0Oicc&t=65s

남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2월 23일(화) 남구체육회 사무실에서 각 종목단체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1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임원 선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 토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연제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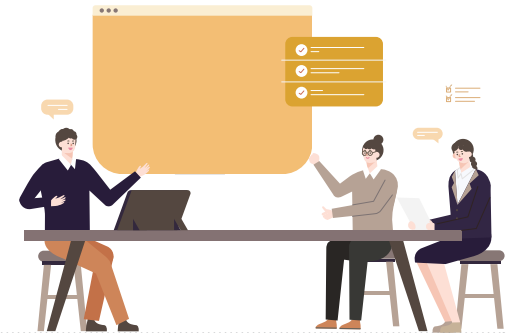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2월 25일(목) 연제구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이 임하는 종목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 체육 유공자들에게 연제구 체육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행정감사 1명, 대의원 14명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개요,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진행절차 요약,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와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진행했다.

북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

북구체육회는 지난 2월 26일(금) 오후 2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기 대의원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북구체육회 종목협회장 14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협회별 계획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재개



수영구체육회는 코로나19로 생겼던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풀린 이후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재개했다. 현재 운영하는 장소는 동아대학교 합기도 스쿨, 경희대학교 가운태권도로 장소를 대관해 성별,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민들이 참가 중이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인원수 제한은 물론이고 거리 두기와 실내 규칙을 지키며 과도한 동작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는 다시 확대될 것이며 많은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이다.

회원종목단체

부산광역시체육회 강영서 선수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강영서 선수가 국제스키연맹(FIS) 레이스 오스트리아 대회 여자 회전 경기에서 준우승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유럽에서 열린 FIS레이스 알파인 종목에서 입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영서 선수는 지난 3월 3일(수)(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인근 오베르페르후스에서 열린 2020~2021 FIS 레이스 여자 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19초 96으로, 1분 79로 우승한 오스트리아 선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선두와는 0.17초 차에 불과했다.

FIS 레이스는 월드컵이나 대륙컵에 비해 낮은 단계의 대회지만 이번 대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스키 강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전 선수도 83명이나 됐다. 강영서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에선 대회전 47위에 오른 바 있다.

“올해 하이원스키장에 마련된 알파인 대표팀 전용 훈련장에서 연습한 것이 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힌 강영서 선수는 지난 3월 6일(토)부터 이틀간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2020~2021 FIS 월드컵 회전과 대회전 경기에 출전한다.

부산 하남초등학교, 하단중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체대를 나온 강영서 선수는 국내 최정상 스키 선수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 실업팀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경기에서도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 대한스키협회



부산공공스포츠클럽

거점스포츠클럽 제2대 회장선거

지난 2021년 1월 29일(금), 거점스포츠클럽 제2대 회장선거가 진행되었다. 초대 회장인 조동준 회장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김원식 회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4년간 거점스포츠클럽 부회장으로서 거점스포츠클럽에 많은 기여를 했던 김원식 회장의 앞으로 4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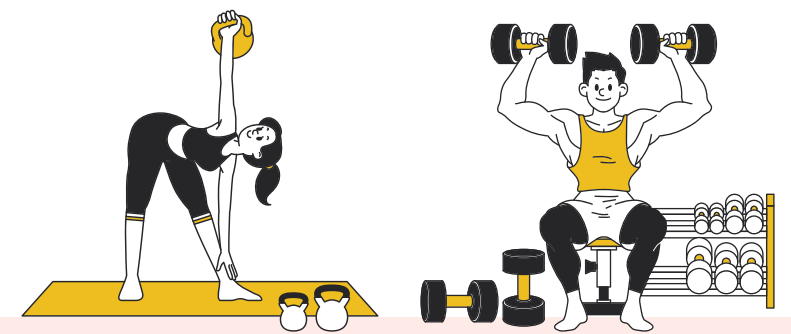


거점스포츠클럽 홈트레이닝 영상 배포



거점스포츠클럽은 코로나19와 추위로 움츠러든 몸을 일깨우기 위해 매주 종목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을 배포했다. SNS, 밴드 등을 통해 많은 회원들에게 안내해 운동에 대한 흥미 유지와 신체건강에 많은 기여를 했고, 2월 중순부터 생활체육 재개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를 깨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Home Training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21년도 장애인 스포츠사 자격검증 등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의 3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에 의거 '2021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증 및 연수 시행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www.insports.or.kr)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접수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일반과정	4. 8 (목) 09:00 ~ 4. 16 (금) 18:00	4. 8 (목) 09:00 ~ 4. 16 (금) 18:00	4. 8 (목) 09:00 ~ 4. 20 (화) 24:00	5. 15 (토) 10:00	6. 3 (목) 09:00
실기 및 구술검정 (동계종목)	일반과정 추가취득 특별과정	2. 25 (목) 09:00 ~ 3. 4 (목) 18:00	2. 25 (목) 09:00 ~ 3. 4 (목) 18:00	2. 25 (목) 09:00 ~ 3. 4 (목) 24:00	3. 10 (수) ~ 4. 4 (일)	4. 8 (목) 09:00
		6. 4 (금) 09:00 ~ 6. 11 (금) 18:00	6. 4 (금) 09:00 ~ 6. 11 (금) 18:00	6. 4 (금) 09:00 ~ 6. 14 (월) 24:00	6. 17 (목) ~ 7. 11 (일)	7. 15 (목) 09:00
실기 및 구술검정 (하계종목)						
구분		연수등록	연수비 납부	일반수업	현장실습	
연수 (상반기)	일반과정 특별과정	3. 12 (금) 09:00 ~ 3. 19 (금) 18:00	3. 12 (금) 09:00 ~ 3. 19 (금) 24:00	3. 27 (토) ~ 12. 19 (일)	3. 27 (토) ~ 12. 19 (일)	
연수 (하반기)		7. 16 (금) 09:00 ~ 7. 23 (금) 18:00	7. 16 (금) 09:00 ~ 7. 23 (금) 24:00	7. 31 (토) ~ 12. 19 (일)	7. 31 (토) ~ 12. 19 (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예정)						
7. 23 (금), 12. 24(금)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접수	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일반과정 특별과정	4. 15 (목) 09:00 ~ 4. 23 (금) 18:00	4. 15 (목) 09:00 ~ 4. 23 (금) 24:00	5. 15 (토) 10:00	6. 3 (목) 09:00	
구분		접수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검정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 (동계종목)	일반과정 추가취득 특별과정	2. 25 (목) 09:00 ~ 3. 4 (목) 18:00	2. 25 (목) 09:00 ~ 3. 4 (목) 18:00	2. 25 (목) 09:00 ~ 3. 4 (목) 24:00	3. 10 (수) ~ 4. 4 (일)	4. 8 (목) 09:00
실기 및 구술검정 (하계종목)		6. 4 (금) 09:00 ~ 6. 11 (금) 18:00	6. 4 (금) 09:00 ~ 6. 11 (금) 18:00	6. 4 (금) 09:00 ~ 6. 14 (월) 24:00	6. 17 (목) ~ 7. 11 (일)	7. 15 (목) 09:00
구분		연수등록	연수비 납부	일반수업	현장실습	
연수 (상반기)	일반과정 특별과정	3. 12 (금) 09:00 ~ 3. 19 (금) 18:00	3. 12 (금) 09:00 ~ 3. 19 (금) 24:00	3. 27 (토) ~ 10. 17 (일)	3. 27 (토) ~ 10. 17 (일)	
연수 (하반기)		7. 16 (금) 09:00 ~ 7. 22 (목) 18:00	7. 16 (금) 09:00 ~ 7. 22 (목) 24:00	7. 26 (월) ~ 10. 17 (일)	7. 26 (월) ~ 10. 17 (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예정)						
7. 23 (금), 11. 5 (금)						

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꿈나무체능단 졸업생 21명, 수료생 38명을 대상으로 졸업식 및 수료식을 지난 2월 24일(수)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행사를 취소하고 반별로 교실에서 간소하게 진행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졸업식 및 수료식을 잘 마무리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나무체능단을 다니며 정이 들었던 단원들과 이별하는 아쉬운 마음을 반별로 영상에 담아 빔 스크린을 활용해 전달했다. 또 단원들에게 축하선물을 나눠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며 단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코로나19로 꿈나무체능단 생활에 아쉬움이 많은 해였지만 씩씩하게 꿈나무체능단 생활을 마무리한 친구들이 꿈나무체능단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멋진 초등학교생이 되길 바란다.



02. 줌바 신규 프로그램 개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줌바 프로그램을 올 4월 화, 목 오전 10시에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줌바는 라틴음악에 맞춰 댄스 스텝과 피트니스 동작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회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회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지난 3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무료 공개수업을 진행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북구국민체육센터

01. 생명을 살리는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2일(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전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민들이 신뢰하는 북구국민체육센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02. 안전한 운동 환경을 위한 강력 방역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 강화에 따라 2월부터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만큼 시설 방역조치 강화를 더욱 철저히 시행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탈의실, 샤워실, 헬스장, 관망대, 스튜디오 A·B, 복도 등 센터 모든 시설물 방역 강화와 총별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안심에 대한 배너 설치와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전 임직원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

01. 영도국민체육센터 재개장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센터 휴관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화)부터 센터를 재개장했다. 재개장을 준비하며 센터 내외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했고 방역수칙 게시,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한 직원 교육 등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객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작성(전자 명부, 안심콜, 수기 명부),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시설 환기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당부했다.



02.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최근 아동 학대의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2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아동 학대 예방 및 주요 사례, 아동 학대 발견 시 대처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01. 수영장 대청소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휴장 기간 동안 수영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수조 물때 제거 및 센터 모든 시설에 방역을 실시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장은 “우리 체육시설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도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02.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월 휴장 기간 동안 수영장의 노후된 창문 보수 및 샤워장 수전 교체와 2층 전망대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회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1월 19일(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로 최대 50명 입장가능 기준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개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 상태였다. 지난 2월 16일(화)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으로 최대 입장 인원 120명으로 늘려서 개장했다. 부산실내빙상장 내 방역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부산시민과 체육인들이 빙상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이용요금							
수강요일	수강시간	수강대상	수강인원	주 2회 수강료(1인당)			
개인 레슨 문의는 051-714-7330 으로 해주세요.	06:00 ~ 07:00	일반동호인 개인 20분 수업	3명	15만 원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점심 및 휴식시간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일반동호인 개인 20분 수업	3명	15만 원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주 2회 수업 (월, 화, 목, 금) : 요일 선택 가능 - 월 8회 기준							